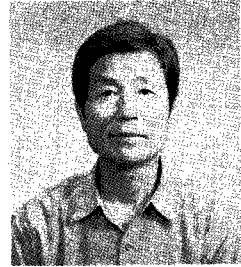


양계인들의 자구노력에 보탬을 줄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해주길



박 재 류

본회 부산·경남지부장

사료값 폭등과 양계산물의 시세 하락을 물고온 IMF 한파 이후 양계업계는 온통 걱정뿐이다. 환율인상으로 리스 상환 부담 증가, 입추기피로 육용계 병아리 랜더링, 가격 폭락, 현금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사료 등 앞이 캄캄한게 오늘의 현실이다.

잠시 양계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인상으로 상승하면 어김없이 찾아 오는 것은 소비둔화인 것이다. 가격이 좋아도 당황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당황해 하는 양계인들의 흔들리는 자세는 중심을 잡을 수 없다. 과연 IMF 한파 앞에 한국축산업을 앞장서 끌고온 양계업은 좌절하고 말 것인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 IMF 때문에 잃은 것만 있는지 얻을 것은 없는가?

우리는 그 동안 WTO체제 출범이후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 대해 많이 걱정해 왔고 많은

손해를 보아 온 것이 1997년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환율인상으로 수입이 줄어 국제 경쟁력은 생겼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임금이 깎이고 소비 약재가 겹쳐 소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소비가 떨어지는 만큼 생산을 줄여보자. 생산을 10%로 줄이면 가격은 20% 이상 상승하고 50% 줄이면 2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격 결정권을 우리 손에 쥐어준 IMF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학자이며 누구보다도 농업의 생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던 신임 김성훈 장관에게 바란건데 양계인들의 자구 노력에 보탬을 줄 정책목표를 설정, 제시, 추진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요즘 연립여당간의 믿음은 미생지신(尾生之信)에 비견할 만하다는 모 일간신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도 믿고 싶다. **양계**